

스웨덴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머리말

스웨덴의 노동시간은 OECD의 '2014년 OECD 회원국 내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제 노동시간' 통계에 따르면 1,609시간이다. 이는 32개 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한 한국(2,124시간)의 70~8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¹⁾ 한편 스웨덴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1%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회원국(평균 13%) 중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웨덴의 공공기관 및 기업 몇몇은 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실험은 스웨덴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노르웨이 노총인 LO에서도 2020년부터 이 6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

이 글에서는 스웨덴에서 실시되고 있는 6시간 근로 실험의 배경과 사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적은 국가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1) OECD stat 웹사이트,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2) BBC 뉴스, 2015년 11월 2일자, The truth about Sweden's short working hours, <http://www.bbc.com/news/business-34677949>

3) <http://www.tnp.no/norway/economy/5148-norway-may-introduces-six-hour-work-day>

더 줄이고자 하는 스웨덴의 근로시간 줄이기 실험을 살펴보는 것은 장시간 근로와 관련한 모든 통계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일 6시간 근로의 역사적 배경 및 사례

사실 일 6시간 근로 정책은 스웨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이미 13년 전에 예테보리(Goteborg)에 있는 토요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6시간 교대근무제를 도입했다. 토요다 서비스 센터의 마틴 방크(Martin Banck)에 따르면 도입 이후, 전반적인 이윤이 25%가량 증가했고 직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직률 역시 낮아졌다고 밝혔다.⁴⁾

이 밖에도 스웨덴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키루나 지자체에서는 1989년 지역 내의 모든 홈케어 서비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6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6년간 유지되어오던 이 제도는 행정부의 권한이 좌파연정에서 우파로 넘어가면서 2005년 폐지되었고 직원들은 다시 8시간 동안 근무하게 되었다. 한편 스톡홀름 시 의회에서도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6시간 근로 실험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시도했으나 키루나의 사례처럼 행정부가 바뀌면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스톡홀름 시 의회의 6시간 근로 실험 당시 평가에 참여했던 룬드대학교의 비르키타 올손(Birgitta Olsson) 교수는 이 실험의 종료는 정치적인 결정이었고 정치인들이 실험으로 인해 생길 비용을 문제 삼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녀는 “실험은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좋은 투자였다. 많은 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은 나은 건강과 나은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 실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⁵⁾

이처럼 기업과 지자체의 일 6시간 근로 제도의 도입 시도는 가끔 목격할 수 있는 사례였지만 전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도입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웨덴 좌파당과 녹색당은 근

4) <http://www.sciencealert.com/sweden-is-shifting-to-a-6-hour-workday>

5) 가디언지, 2015년 9월 17일자, “Efficiency up, turnover down: Sweden experiments with six-hour working day”,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sep/17/efficiency-up-turnover-down-sweden-experiments-with-six-hour-working-day>

로자들의 주 30시간 근로(일 6시간 근로)를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 왔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연정 구성 시 공동의 공약으로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 녹색당은 주 30시간 근로를 2013년에 당 내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내놓고 2014년 총선에는 그들의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반면 좌파당은 2014년 총선을 앞두고 해당 총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다음 총선의 공약으로 삼을 것이라 발표했다. 같은 연정의 또 다른 파트너인 시민당은 2014년 총선 당시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다.

스웨덴 내 스타트업의 6시간 근로 사례

하지만 최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는 스웨덴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6시간 근로 실험이다. 디지털 프로덕션 기업인 Background AB의 사장인 지미 닐손(Jimmy Nilsson)은 더욱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에 6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는 “8시간 동안 일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6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며 6시간 근무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Background AB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동안에는 소셜미디어 접속이나 개인적 전화나 이메일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근무한 뒤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3시간을 근무한 뒤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여는 변화 없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닐손은 일단 이 제도를 9개월간 실시해보면서 이 제도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고객과 직원들에게 잘 맞는 제도인지 파악해볼 것이라 밝혔다.⁶⁾

스톡홀름에 위치한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Filimundus 역시 2015년부터 6시간 근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 리누스 펠트(Linus Feldt)는 Fast Company와의 인터뷰에서 6시간 근로의 장점이 사무실과 일상생활 모두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선 직장에서는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사

6) BBC 뉴스, 2015년 11월 2일자, “The truth about Sweden's short working hours”, <http://www.bbc.com/news/business-34677949>

무실을 떠났을 때에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운동이나 기타 취미활동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했다. 또한 직원들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직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직장 내 갈등도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⁷⁾

스바르테달렌스(Svartedalens) 요양원의 근로시간 실험 사례

한편 예테보리 지역 내 요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 6시간 근로 교대제 실험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4년 4월, 예테보리 시 행정부 내 좌파당, 사민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연정은 예테보리 지역 내 히싱엔(Hisingen)에 있는 스바르테달렌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을 1년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역 내 다른 요양원은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도록 하여 하나의 통제집단으로 설정해두었다. 예테보리 시 부시장인 마츠 필헴(Mats Pilhem)은 스바르테달렌스 요양원을 선택한 이유로 이 기관은 80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적당한 환경이며 근처의 다른 요양시설과 비교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의 근무강도가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년인 65세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다 질병을 앓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시도가 근무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험에 대해 관찰 및 평가를 할 연구자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험 개시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201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예테보리 시 행정부 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좌파연정은 이 실험의 결과로 질병휴가 사용의 감소, 정서적·육체적 건강 개선, 더 많은 일자리의 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좌파연정은 지역 내 기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정책 및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이 근

7) 인디펜던트지, 2015년 10월 1일, "Sweden introduces six-hour work day",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sweden-introduces-six-hour-work-day-a6674646.html>

로시간 단축 정책은 소규모의 실험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시행되어 공약이행과 함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예테보리 지자체 내 중도우파 계열 정당들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해왔다. 이번 실험에 대해서도 중도우파 계열 정당의 정치인들은 실험 시도가 지극히 포퓰리즘적이며 근로시간 단축 실험이 오히려 요양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연구자들은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시도가 근로자와 요양원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실험은 201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 이후 평가를 거쳐 지자체에서 계속 운영할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실험 종료 후 6시간 근무를 위해 새로 고용한 14명의 직원(보조 간호사)에 대한 비용이 환자 돌봄의 질과 직원들의 사기, 건강 상태 향상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 실험의 평가와 관찰을 맡고 있는 연구자인 벵트 로렌존(Bengt Lorentzon)은 지금 어떤 결과를 내놓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간호사들이 확실히 이전보다 더욱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고 환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한편 환자들 역시 더 편하고 여유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원장인 안 샬롯 달봄 라르손(Ann-Charlotte Dahlbom Larsson) 또한 직원들의 사기, 건강이 좋아졌고, 돌봄의 질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1990년대 이후, 근무강도는 높아졌지만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질병과 우울증에 걸리는 직원들이 늘었고, 일·생활 균형의 부족이 나타났으며 이번 실험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⁸⁾

이 요양원의 실험은 스웨덴 내 다른 지역의 병원들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같은 예테보리 시의 살그렌스카(Sahlgrenska)대학 병원의 정형외과와 우메오(Umeå)의 두 병원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8) 가디언지, 2015년 9월 17일자, "Efficiency up, turnover down: Sweden experiments with six-hour working day",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sep/17/efficiency-up-turnover-down-sweden-experiments-with-six-hour-working-day>

■ 근로시간 단축의 효용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직원들의 건강이나 근로조건, 생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들의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의 60만 명의 근로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The Lancet)에 따르면, 주당 5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당 35~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3% 높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 역시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반면 근로시간 줄이기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6시간 근로가 실제로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2006년 스웨덴 지자체 근로자 노동조합(Kommunal)의 조합원 25,137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보고서는 30시간 근로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며 주 40시간 근로 내에서 근로조건 개선, 임금 상승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금까지 Kommunal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다.¹⁰⁾

스웨덴 경영자협회(Svenskt Näringsliv: SN)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왔다. SN의 노동경제학자인 수잔 스펙터(Susanne Spector)는 근로시간 단축이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고 고용률을 낮추며 높은 실업률을 야기할 것이라 밝혔다. 그녀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도리어 다른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높은 실업률을 야기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2002년 발표된 근로시간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담은 SN의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들의 사례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건강이 더 좋지 않음을 입증했다.¹¹⁾

9) <http://www.sciencealert.com/working-long-hours-is-linked-to-a-significantly-higher-risk-of-stroke>

10) <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articles/working-conditions-industrial-relations-law-and-regulation/sweden-göteborg-municipality-implements-30-hour-working-week>

11) <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articles/working-conditions->

■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재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6시간 근로 실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015년 10월, 각국 언론에서는 스웨덴의 근로시간 줄이기 실험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며 마치 스웨덴 전역에서 6시간 근로가 확산될 것처럼 들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외신의 보도와는 다르게 스웨덴 전역에 6시간 근로가 제도화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언론사 Dagens Nyheter는 이러한 외신 보도를 경계하면서 스웨덴 내 6시간 근로 확산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¹²⁾

앞서 살펴보았듯 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서는 애초에 효과를 기대했던 근로자의 건강 부분에 있어 대부분 만족을 표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스웨덴 전체에 확산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근로시간과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 향상 간의 뚜렷한 연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연구결과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직무, 직종의 특성과 기업의 업무환경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실험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KL**

industrial-relations-law-and-regulation/sweden-göteborg-municipality-implements-30-hour-working-week

12) <http://www.dn.se/ekonomi/myt-om-sverige-sprids-over-varlden/>